

#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의 생애(生涯)

이 선 희 / 중앙대 박사과정

- 목 차 -

- I. 머리말
- II. 유년시절과 초기 관직생활
- III. 임진왜란 중의 외교 활동과 자강 노력
- IV. 임진왜란 후 정국 혼란기의 정치활동
- V. 龍津에서의 생활
- VI. 맺음말

## I. 머리말

李德馨은 1561년(명종 16)에 태어나서 1613년(광해군 5)까지 살았던 조선 중기의 대표적 문신이다.

1579년(선조 12)에 문과에 급제함으로써 관직생활을 시작한 후로 34년 동안 조정의 중심축으로 활동하였다. 그런데 그가 활동했던 시기인 선조와 광해군 초기는 정치적으로는 사림파의 본격적인 봉당 정치로 인한 士禍期였고 사회적으로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은 전란기였다. 이처럼 이덕형의 삶은 정치와 사회가 그전의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시기를 관통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인물의 가치가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중요성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 혼란의 중심에서 어떤 역할을 행하고 혼란을 수습하는 역사적 기능을 했을 때 역사적 가치를 부여받게 된다. 이점에서 이덕형의 생애는 주목할 만하다.

우선 이덕형은 남인출신으로 복인의 領首인 李山海의 사위로 영의정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사림파의 봉당 정치를 ‘망국적 권력다툼’으로 보는 극단적 이분법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경우이다. 이덕형의 행적을 통해 봉당 정치의 본질적 취지를 권력다툼이 아닌 상호견제를 통한 상호 공존의 원리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그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탁월한 외교활동으로 명의 파병을 이루어냈고 파병된 명나라 군대를 맞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이동하며 전란을 수습하였다. 난 후에는 병조판서의 직임을 맡아 중국의 선진 병법을 익히고 알렸으며 또 다른 전쟁을 대비하는 여러 방책을 마련하였다.

이덕형에 관한 기록은 「漢陰文稿」<sup>1)</sup>와 「宣祖實錄」, 「光海君日記」, 「國祖人物考」, 「燃藜室記述」, 「白沙集」 등에서 보여진다. 이를 통한 이덕형의 생애와 정치사상에 대한 고찰은 사림파의 사회정치사상의 일단을 보여 주고 임진왜란 당시의 국내실정이나 전황, 그리고 對明·對倭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덕형에 대한 독자적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짧은 인물평이나 몇 편 안 되는 논문이나 저서에서 간단하게 언급되는 정도이다.<sup>2)</sup>

이덕형의 연보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이덕형의 생애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어린 시절부터 보여준 뛰어난 문장실력과 20세에 급제한 후 빠른 승급과정을 II장 유년시절과 초기 관직생활로 묶고, 임진왜란 기간동안의 외교활동과 전란 후의 자강노력을 III장에서, 선조 말년부터 광해군 초기까지의 정치적 혼란기의 활동을 IV장에, 마지막으로 용진에서 보낸 말년의 생활을 V장으로 하였다.

## II. 유년시절과 초기 관직생활

### ‘總角政丞’ 이덕형

이덕형이 태어난 곳은 漢陽 南部 誠明坊(지금의 남대문과 필동 사이)이었지만 6세때인 1566년(명종 21)에 아버지<sup>3)</sup>가 尙州와 化寧에서 寓居한 까닭으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어느날 복술가 咸忠憲이 지나는 길에 이덕형을 보고, “운명이 지극히 좋아 40세 안에 내각에 들어갈 것이니, 속히 서울로 올라가 올바른 교육을 시켜 성공하도록 하라.”<sup>4)</sup>

1) 『한음문고』는 이덕형의 시문집으로 12권 5책으로 되어있다. 손자인 象鼎이 편집하여 1673년(현종 14)에 간행하였다. 권1·2는 詩로, 권3~7은 表·敎書·疏劄로, 권 10·11은 簡牘으로, 권12는 序·跋·傳·祭文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869년(고종 6) 후손 宜翼 등이 [漢陰文稿附錄]을 편찬하여 저자의 연보·묘지·행장·諡狀 등을 수록 간행하였다.

2) 諸洪圭, 1974, 『壬辰倭亂과 梧陰 尹斗壽』, {도서관} 29권 제6호.  
柳承宙, 1985, 『倭亂後 明軍의 留兵論과 撤兵論』, {千寬宇先生 還曆紀念 韓國學論叢}.  
한명기, 1999,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3) 지증추부사를 지내고 영의정에 추증된 敏聖. (漢陰文稿) 附錄 卷1, 年譜 上.

라고 하였다. 복술가의 말에 따라 아버지는 교육을 위해 서울로 올라와 桃楮洞(지금의 혜화동)에 자리를 잡았다.

이덕형은 어린 시절부터 문예가 뛰어났고 걸음걸이나 말씨가 이미 어른 같아서 주위의 사람들이 ‘總角政丞’이라 불렀다.<sup>5)</sup> 그의 문장력은 楊士彥과의 일화에서 가늠되어진다. 당시 14세였던 이덕형은 포천에 있는 외삼촌의 집에서 독서하고 있었는데 지나던 양사언이 그와 함께 牛頭淵이란 곳에 나가 詩를 주고 받았는데<sup>6)</sup> 시가 오갈수록 뛰어남이 더해가므로 양사언이,

“그대는 나의 스승이다. 나의 적수가 아니다.”

라고 한 후 손수 네 구의 시를 돌 위에 새겨 놓았다.

### 과거 급제후의 빠른 진급

이덕형은 18세가 되던 1578년(선조 11) 가을에 生員試와 進士試에 모두 합격하였다. 이 때부터 白沙 李恒福과 교분을 맺고 죽는 날까지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국사를 함께 담당하였다. 이항복은 기지와 해학, 재기발랄한 명민을 지니고 있으면서 인정이 넘치는 인간적인 인물이었다. 이덕형은 위풍이 당당하고 언변이 뛰어났으며, 언제나 상대를 압도하였다고 한다.

연이어 20세인 1580년(선조 13)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承文院 權知副正字을 시작으로 누구보다 빠른 진급을 하며 34년간의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의 빠른 진급에는 무엇보다 뛰어난 문예가 뒷받침이 되었다. 이는 후에 외교관으로서 활동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예의 뛰어남으로 李珥에 의해 綱目 강독에 李恒福·吳億齡·李廷立·李嶸 등과 함께 선출되어 오로지 문학만에 힘쓸 수 있게 되었고 이후 이항복과 함께 승문원과 홍문관에서 일했다.<sup>7)</sup> 왕이 친히 문예를 겨루게 하는 瑞臺應製에서 여러번의 장원을 하였는데 간혹 일부러 응제에 불참하여 공을 남에게 돌릴 정도였다.<sup>8)</sup>

이덕형은 홍문관 교리와 대사성을 거쳐 1592년 임진왜란 때에는 예조참판 겸 대제학이 되었다. 31세의 이른 나이로 대제학이 된 이덕형은 이때부터 정치가로서의 수완과 외교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5) 『漢陰文稿』附錄 卷1, 年譜 上.

6) 『漢陰文稿』권1, 「次楊士彥韻」.

7) 『선조실록』권16, 선조 15년 6월 1일 정해.

8) 『漢陰文稿』附錄 卷1, 年譜 上.

### III. 임진왜란 중의 외교 활동과 자강 노력

#### 외교활동의 시작

이덕형이 외교가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28세인 1588년(선조 21)로 이조정랑에 올라 宣慰使로 차출되면서부터였다. 화친을 청하러 倭使를 접대하기 위해 차출한 선위사는 왜사가 글이 능함점을 들어 이덕형이 지목되었다. 조선시대의 외교관은 무엇보다 문예가 중요시되었다. 「실록」에 보이는 다음의 내용에서 이점을 잘 알 수 있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옛 사람이 ‘말은 몸의 글이다.’ 하였습니다. 情意가 막혀 의사를 통하지 못하면 반드시 文墨으로 서로 통해야 하는데, 말과 글을 잘하지 못하여 정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니, 반드시 글을 잘하는 사람을 시켜야 합니다. 예전의 위란(危亂)하던 때에도 글을 잘하는 사람을 시킨 것은 이 때문입니다. 또 이번은 여느 때의 중국 사신의 예(例)가 아닌데 접대가 모양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답답하고 염려됩니다.”<sup>9)</sup>

#### 임진왜란때의 외교활동

임진왜란은 이덕형의 나이 32세인 1592년(선조 24)에 일본장수 小西行長 등이 부산에 침범하면서 시작되었다. 왜군은 동래를 함락한 후 과족지세로 경상도를 휩쓸면서 북행하고 있었다. 이때 왜군측에서는 계속되는 교섭을 다 뿌리치고 왜장 平行長이 공문을 보내 이덕형과 만나 강화를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당시 동지중추부사로 전선에 나가 있던 이덕형은 밀양에서 단신으로 왜진으로 향했으나 도중에 밀고 올라온 왜군의 기세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평양으로 되돌아왔다. 이후 왜군은 평양성의 함락을 앞두고 또 한차례 이덕형을 만나자고 하였다. 그는 단신으로 배를 타고 玄蘇와 平調 信을 대동강 한가운데서 만나 일본의 배신을 강하게 힐책하고 명나라를 치기 위해 길을 비켜달라는 강요를 단호히 거절하였다.<sup>10)</sup>

이덕형은 왜군을 만난 뒤 강화로서는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조정에 보고하고 선조를 定州까지 扈從하면서 이항복과 함께 명에 구원병을 청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항복과 함께 청원사를 자청했으나 당시 이항복은 兵曹를 담당한 까닭에 이덕형만 차출되었다. 명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이항복이 전송을 나왔는데 이항복은 자신이 타고 있던 말을 이덕형에게 주었다.<sup>11)</sup>

명에서는 자국의 사정으로 구원병 보내기를 주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온갖 설득 끝에 親朝派인 兵部上書 石星을 움직여 파병을 성공시켰다.<sup>12)</sup> 1593년 그의 나이 33세에

9) 『선조실록』 권 45, 선조 26년 윤11월 2일 임오.

10) 『漢陰文稿』附錄 卷1, 年譜 上.

11) 『漢陰文稿』附錄 卷1, 年譜 上.

12) 『선조실록』 권27, 선조 25년 6월 27일 을묘./ 요동에서 돌아온 기사는 『선조실록』 권28, 선조 25년 7월 3일 경신조에 보인다.

병조판서가 되어 전쟁을 지휘하였다. 또한 파병된 李如松의 부대가 압록강에 당도하자 接伴使가 되어 이여송의 부대와 함께 이동하며 부대의 군량관리와 조달은 물론 뛰어난 전술로 평양탈환에 일조하였다.<sup>13)</sup>

또한 이여송부대가 명으로 조기에 돌아가려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만류하여 난의 조속한 수습에 노력하였다. 이덕형은 이여송부대와 조정을 오가며 상황을 보고하였다. 명의 입장과 수시로 바뀌는 전세상황, 몸소 느낀 백성들의 피해상황들을 상세히 보고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14)</sup>

임진왜란은 이덕형 개인에게도 많은 상처를 남겼다. 외교활동과 전선에서의 싸움으로 바쁠 때 그의 가족은 전란의 한 가운데에 있어야 했다. 이덕형의 부인인 한산이씨는 1592년 그의 나이 32세때 안협현의 백암산에서 왜적에게 기다 순절하였다. 그의 부모도 피난의 와중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야 했다.

1597년 약 20만의 일본군이 다시 조선을 침략하여 정유재란이 일어났다. 앞서 이여송의 부대와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것과 같이 이번에도 파병된 經理御史 楊鎬의 부대를 접반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날 무렵인 1598년 이덕형은 38세의 장년으로 우의정에 올랐다.

### 전란 후의 자강노력

미증유의 대전란인 임진왜란의 피해로 역질과 기근이 백성들은 괴롭혔고, 풍속은 극도로 문란해 있었다. 이때를 당하여 그는 사도도체찰사로서 백성의 구호사업과 민심의 수습, 그리고 지방군대의 정비에 온갖 심혈을 기울였다.<sup>15)</sup>

이덕형은 모친상을 당하고 예에 따르지 못하고 다시 임용되었다. 그는 평상시는 물론 전란의 와중에도 말미를 얻어 부모를 찾아 보살필 정도의 효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병조판서로서 전란의 수습과 정리를 위해 그의 복직은 피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사관의 글을 보면 그 부득이함을 알 수 있다.

史臣은 논한다. 기복이 비록 옛법이나 적이 문정(門庭)에 있고 몸소 중책을 맡았으면 기복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從軍에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혹은 스스로 기복하여 장수가 되기도 하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등 못하는 일이 없다. 비록 훈련 때문에 부득이하여 이러한 기복의 명이 있었다 하여도 그를 한산한 지위에 앉혀 그로 하여금 훈련에 전심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이덕형은 끝내 억지로 기복함을 면치 못하였으니, 다같이 잘못을 범한 것이다.<sup>16)</sup>

13) 『漢陰文稿』附錄 권1, 年譜 上.

14) 이때의 실록자료를 살펴보면 접반사가 된 선조 25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 이여송을 전별할 때까지 10개월 동안 50여 차례나 선조와 조정 대신에게 전세를 보고하고 때에 맞춘 대책마련을 함께 하였다.

15) 『선조실록』 권32, 선조 25년 11월 16일 임신. / 『漢陰文稿』附錄 권1, 年譜 上.

16) 『선조실록』 권 57, 선조 27년 11월 15일 기축.

17) 『漢陰文稿』 권8, [啓辭].

조정으로 돌아온 이덕형은 時務八條를 선조에게 올리고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를 시행하였다.

〈時務 八條〉<sup>17)</sup>

1. 농사와 장사를 권장하여 굶주림과 질병을 구제하고,
2. 장정을 모집하여 屯田을 넓히고,
3. 魚物과 食鹽을 운반하여 관민의 힘을 돕고,
4. 지형이 편리한 곳을 골라 防禦陣을 설치하고,
5. 操鍊을 엄하게 하여 정예병을 가려뽑고,
6. 인심을 수습하여 도적을 북중하게 하고,
7. 직임을 오래 맡겨 현저한 공적을 세우도록 하고,
8. 공정하고 인자한 마음을 베풀어 민심을 수습해야 한다.

우선 전란 중에 무엇보다 시급한 훈련을 위해(5條) 鍊兵術을 익숙하게 익혀 조련을 엄하게 하였는데 훈련모습을 본 선조는 이를 치하하고 상을 내렸다.<sup>18)</sup> 이듬해인 1595년 2월에는 화약 제조법의 습득을 주장하였다. 이후에도 방법에 깊은 관심을 가져 1601년 그의 나이 41세에 太師 戚繼光의 「紀效新書」를 기반으로 무예의 체계를 세워 번역하기도 하였다. 10월에는 四道副察使가 되어 경기·황해·평안·함경 등을 돌며 백성의 구호사업과 민심수습에 노력하였다(6·8條) 전란 중 직접 전선에서 전쟁의 피해를 목도한 그는 민심의 안정을 위해 1601년 다시 4도도체찰사가 되어 충청·전라·경상·강원 등을 돌며 현실정치를 몸소 실천하였다.

이어 방어진의 설치를 위해(4條) 남한산성을 살펴보았다. 이어 중흥동산성을 살펴보고 그림으로 그려 수순할 방법을 선조에게 알렸다.<sup>19)</sup> 1597년(선조 30)에는 처음으로 復軍을 설치하여 8도에서 병사를 모집하였다(2條). 장정을 모집하는 일은 이에 끝나지 않고 1599년에 다시 국내 장정들을 뽑아 명군을 도와 防守하도록 하였다. 한편 군량의 마련을 위해 날마다 비변사에 나가 그 방안을 모색하였다.<sup>20)</sup>

대마도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중신들이 화친을 찬성하였으나 이를 극력 반대하였다.<sup>21)</sup> 이는 정세에 대한 혜안을 지닌 것으로 대마도의 왜인들과 화의를 맺으면 다시 빈번하게 벌어질 분쟁을 예견한 까닭이었다. 1602년 나이 41세 되던 해 4월에 대마도의 왜사 橋持正이 화친을 청하는 문서를 가져왔다. 이덕형은 그의 거짓됨을 알고

17) 『漢陰文稿』 권8. [啓辭].

18) 『선조실록』 권 50, 선조 27년 4월 12일 경신 / 권 51, 선조 27년 6월 4일 신해.

19) 『선조실록』 권 73, 선조 29년 3월 3일 경오.

20) 『漢陰文稿』 附錄 권1, 年譜 下.

21) 『선조실록』 권 134, 선조 34년 2월 10일 기묘.

남쪽에 아직 남아있던 명군을 모아 이들을 위협하니 그대로 돌아갔다.

이항복은 임진왜란 당시 明軍의 파병을 성사시킨 공을 들어 녹훈을 청하였고 신조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덕형이 애써 사양하여 녹훈되지 않았다.<sup>22)</sup> 그러나 녹훈되지 않은 직접적 이유는 선조가 난을 피해 定州로 갈 때 호종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는 언제나 전선에 있었으며 그렇지 않을 때는 명과의 교섭을 위한 외교활동 중일 때였다. 이렇듯 그는 전란을 몸으로 겪었으며 그렇기에 그가 내놓는 정책들은 현실적이고 시급한 현안들일 수 있었다.

#### IV. 임진왜란 후 정국 혼란기의 정치활동

당색에 물들지 않고 직언을 하는 강직한 영의정

1602년 이덕형은 42세의 나이로 정치가로서나 관리로서 최고의 영록인 영의정이 되었다. 그는 4년동안 영의정의 자리에 있으면서 당색에 흔들리지 않고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헌신하였다.

이덕형은 일찍이 붕당의 피해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39세이던 1599년(선조 32)에 黨人들의 다툼으로 조정이 어수선해지자 옛부터 내려오는 붕당의 피해를 낱낱이 아파서 간사한 무리의 축출을 청하고 붕당의 조정을 청하였다.<sup>23)</sup>

그는 당색에 따라 치우친 행동이나 언행을 하지 않았다. 남인출신이면서 북인인 이산해의 사위였던 점이나 여러 번의 직언에서 알 수 있다. 나이 44세때인 1604년(선조 37)에 臨海君이 도적을 사주하여 柳熙緒를 살해하고 그 美妾을 가로챘는데 포도대장 邊良傑이 도적을 잡아 자백을 받았다. 이를 본 선조는 오히려 임해군을 포함한 죄를 물어 변양결과 유희서의 아들인 유일을 처벌하여 죽게 하였다. 그러나 유희서는 이덕형의 外從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바로 직언하지 못하다가 天變이 일어 선조가 신하에게 求言을 하자 일의 부당함을 고하였다.<sup>24)</sup> 이로 인해 영의정에서 판중추부사로 물러나게 되었다. 당시 이덕형의 행동을 두고 실록의 史論에는,

“史臣은 논한다. 옛적부터 충성스러운 말을 하고 곧은 논을 하는 선비는 대부분 거슬림을 받았지만 오늘날처럼 심한 경우는 있지 않았다. 대간은 구차하게 용납하면서 감히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덕형은 수상(首相)의 신분으로서 국가의 두터운 은덕을 받고 있는데, 차마 일신(一身)의 계책만을 위하느라 또한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이야말로 광구(匡救)하는 대신의 체통을 지킨 것으로서 충성심이 격발될 바이니, 어찌 그만둘 수 있는 일이었겠는가.”<sup>25)</sup>

22) 『漢陰文稿』 권3. [表·教書].

23) 『漢陰文稿』 附錄 권1. 年譜 下.

24) 『漢陰文稿』 권4. [疏劄].

25) 『선조실록』 권172. 선조 37년 3월 27일 정축.

라고 하여 그 올바름을 칭송하였다.

### 광해군 즉위 초기의 정국 혼란기의 이덕형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하자 陳奏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에 다시 영의정에 복직되었다. 그러나 이때의 정치상황은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다. 선조 때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된 붕당은 동·서인의 분파와 정쟁을 거치면서 동인이 득세하였고 다시 동인이 남·북인으로 나뉘어졌다. 북인계열은 1606년(선조 37)에 永昌大君이 태어나면서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파와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로 갈라졌다. 선조대의 치열한 붕당간의 혼선은 광해군대에 이르러 그 정도를 더해갔다.

광해군 시대는 왕권에 대한 위협이 극대화되어 있었다. 광해군의 즉위는 선조 이후 다시 적자가 아닌 서자가 왕위를 계승함에 따라 방계 승통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또한 광해군은 세자 책봉과정에서 장자인 임해군을 제치고 선택되어 明의 고명을 받지도 못했으며 설상가상으로 소북파인 유영경의 모략으로 선조의 선위 교서를 받지 못해 인목대비의 언문 교지로 겨우 왕위를 물려받은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광해군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는 선조의 적자인 영창대군이었다. 결국 광해군은 왕권 안정책으로 정적을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가서 임해군과 영창대군을 제거하였는데 이를 대북파가 지원하고 실행하였다.<sup>26)</sup>

일의 올바름보다는 당파에 따라 결정짓던 때에 이덕형은 그 일의 합당함을 따랐다. 이런 그의 성품은 영창대군의 처리문제에서 잘 나타난다. 영창대군이 태어났을 때 백관들이 하례를 올렸으나 이덕형은 병을 핑계로 참여하지 않았고 이항복도 나가지 않았다. 이는 이미 세자로 책봉된 광해군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613년(광해군 5)에 영창대군의 처형을 三司에서 청하자 이를 극력 반대하였다. 이후 계속되는 대군의 처형문제에 대해 꺾 밖으로 안치하는 정도에서 수습하려 애썼다.<sup>27)</sup> 이미 광해군이 왕위를 물려받은 상황에서 그 안정책을 위해 형제를 살해하는 잘못을 막기 위함이었다.

이덕형은 광해군의 책봉에 누구보다 큰 공헌을 하였다. 광해군이 왕위를 물려받은 후에도 명나라로부터 책봉을 받지 못하자 陳奏使로 중국에 가서 다섯달 동안이나 머물면서 책봉을 성사시켰다.<sup>28)</sup> 더욱이 明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그의 왕위 세습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자 私家에 물러나 있으면서도 차자를 올려 이

23) 『漢陰文稿』附錄 권1, 年譜 下.

24) 『漢陰文稿』권4, [疏筭].

25) 『선조실록』권172, 선조 37년 3월 27일 정축.

26) 권인호, 1999, {조선중기 사림파의 사회정치사상} pp.63~71, 한길사.

27) 『漢陰文稿』附錄 권2, 年譜 下.

28) 광해군일기} 권11, 광해군 즉위년 12월 16일 기사.

의 부당함을 강하게 밝혔다.<sup>29)</sup> 그러나 광해군이 그의 생모를 追崇하려 하자 이의 그릇됨을 들어 반대하였다.

예에 따를 뿐 어느 것에도 치우침이 없는 그의 언행은 삭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1608년 대북파의 충동에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폐모하려 하였다. 이덕형은 이원익·이항복 및 원로 대신들과 함께 이를 극력 반대하다가 삭직되었고 성문 밖으로 내쫓기는 문출의 형을 받았다. 이에 그는 행장을 꾸려 楊根의 龍津 別墅로 내려가 은거하다가 이곳에서 病死하였다.<sup>30)</sup>

## V. 龍津에서의 생활

용진은 先의 묘소가 있는 곳으로 이덕형은 성묘의 편의를 위해 일찍이 廣州의 용진 雲吉山 아래에 별서를 지었다. 堂의 이름을 '大雅'라 붙였고 정자는 '怡老'라 붙였는데 이곳의 산수의 경관이 몹시 좋아 노년을 보낼 계획으로 마련한 것임을 짐작케 한다. 별도로 조그마한 정자를 지어 '相秀'라 하고 書室을 '愛日'이라 이름하였다.<sup>31)</sup> 또한 집앞에 은행나무 두 그루를 심었는데 한 그루는 한음이고 나머지 한 그루는 오성으로 생각하며 다시 만나길 기원했던 나무라고 한다.<sup>32)</sup>

1605년 나이 45세에 아버지를 모시고 龍津에 있는 別墅에 머물렀다. 이후 휴가를 얻어 아버지를 찾아 뵈었는데 특히 50세이던 1610년(광해군 2)에는 아버지의 병환이 위중하여 관직의 해임을 요청하고 번번이 해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말미를 구해 병을 살피고 다시 정사를 살피기를 여러 번 하였다.<sup>33)</sup> 이때마다 용진에서 아버지를 보살폈다.

한편 어지러운 정국에 자신의 뜻을 펼 수 없을 때에도 용진에 내려와 기거하였다. 51세때인 1611년(광해군 3) 봄에는 용진에 머물면서 莎提曲을 짓기도 하였다. 사제는 별서가 있던 마을이름이다. 이때 朴仁老가 이덕형과 함께 노닐었는데 朴인로와는 한음이 영남에 체찰사로 갔을 때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 朴인로가 노래를 잘하므로 그로 하여금 사제곡을 부르게 하였다. 그 내용은 江湖 사이로 물러나 세상을 근심하는 뜻을 슬회하였다.<sup>34)</sup>

1613년 그의 나이 53세에 仁穆大妃를 폐모론과 성 밖에 안치되어 있던 영창대군을 다시 섬으로 옮겨 안치하자는 의논이 일자 차자를 올려 그 불가함을 주장하였으나 받

29) 漢陰文稿 附錄 권2. 年譜 下.

30) 漢陰文稿 附錄 권2. 年譜 下.

31) 『漢陰文稿』附錄 권 2. 年譜 下.

32) 『남양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p.320~321, 1999. 토지박물관.

현재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2리 연세중학교 뒷편 송송골 마을안에 있는데 음력 3월과 10월 상달에 고사를 지내며 단 오절까지 그네를 매어 타기도 했던 마을의 정자목이다.

33) 『漢陰文稿』권5. [疏節].

34) 『漢陰文稿』附錄 권1. 年譜 下.

아들여지지 않았다. 곧이어 그는 龍津으로 물러났다. 이후 三司에서 이덕형에게 극형을 내리도록 청하기를 여러 날 계속하자 상은 그의 관직을 삭탈하고 성문 밖으로 門黜하는 가벼운 형을 내리는 정도에서 이 일을 무마시켰다. 그해 10월 9일 결국 용진의 별서에서 病死하였다. 이덕형의 부음을 듣고 광해군은 즉시 官爵을 회복시켰고, 이듬해 1월 3일에 楊根 中隱洞 卯坐原에 장사지냈다. 중은동은 한음의 先의 묘소가 있는 바로 아래쪽이고 부인 한산이씨의 묘소도 이곳에 있어 그의 유언에 따라 이곳에 합장하였다.

1630년(인조 8)에는 文翼이란 諡號가 내려졌고 1669년(현종 10)·9월 尙州 近 書院에 배향되었다.

상주는 한음의 先塋의 묘소가 있는 곳으로 아버지가 부임하였을 때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다. 이어서 1692년(숙종 18)에는 抱川書院에 배향되었다. 포천은 그의 外鄉으로 외삼촌의 집에서 글을 읽었다.

## VI. 맺음말

이덕형은 그의 생애를 통해 볼 때 정치가였고 외교가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는 유학자였다. 자신이 평소 깊이 궁구하였던 성리학을 바탕으로 자손들의 학문의 방향을 인도하고자 지은 『訓子孫帖』과 광해군 즉위년에 新政을 펴는데 올린 『箴戒』에서 그의 유학자적 풍모를 알 수 있다.

실록에 보이는 이덕형에 대한 史論의 평가를 살펴보면 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상반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우선 긍정적으로 그의 능력을 칭찬하면서 “그의 천품이 粹美하고 才器가 숙성했으며, 또 글을 잘하여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으며<sup>35)</sup> “그는 弱冠에 秀才로 등용되었는데 이산해의 사위가 되어서 禍敗를 면할 수 있었다.<sup>36)</sup>”라고 해서 타고난 능력과 함께 사화기에 그가 위치한 장점도 거론하였다.

그러나 이덕형을 통렬하게 폄하하는 기사도 찾을 수 있다. “그의 사람됨이 본래 재주가 있어서 弱冠에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오로지 아첨하여 비위 맞추기만을 일삼으니 상이 전적으로 신임하였다.<sup>37)</sup>”

또한 “젊은 나이에 발탁되었는데 才藝가 남들보다 뛰어났으나 摸稜에 익숙하여 조금도 강직한 기풍이 없었다.<sup>38)</sup>”는 평가가 그것이다.

실록에 있는 史論의 이런 극단적으로 상반된 평가에서도 그의 문예의 뛰어남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 그의 빠른 진급을 설명하고 있다. 다만 강직한 기풍의 부족이

35) 『선조실록』 권 44, 선조 26년 11월 2일 임자.

36) 『선조실록』 권 42, 선조 26년 9월 5일 병진.

37) 『선조실록』 권 40, 선조 26년 7월 13일 을축.

38) 『선조실록』 권 44, 선조 26년 11월 10일 경신.

나 아첨하였다는 식의 폄하는 그의 정치가로서 이룬 성공에 대한 또 다른 해석방식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가 임진왜란에서 보여준 용맹성이나 적군과 단신으로 벌인 외교활동에서 꺾이지 않는 강인함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왕의 잘못에 대한 직언과 그에 따른 강등과 삭탈 등으로 정치가로서의 이덕형이 갖는 강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덕형이 살았던 50여 년의 기간은 많은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붕당간의 치열한 다툼과 대전란을 몸소 겪으며 역사의 한복판을 살아낸 이덕형의 삶은 개인의 것이기보다는 역사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집약체였다고 하겠다.

〈 연 보 〉

연도	왕력	연령	내 용	역임한 관직명
1561	명종17	1	· 漢陽 南部 誠明坊(지금의 남대문과 필동 사이)에서 출생.	
1566	명종21	6	· 父인 知事公을 따라 尙州와 化寧에서 寓居. · 북술가 威忠憲의 말에 따라 교육을 위해 서울로 올라와 桃楮洞(지금의 혜화동)에 자리잡음.	
1568	선조1	8	· 小學을 시작함.	
1571	선조4	11	· 문예가 성숙하고 말씨가 이미 어른 같아서 '총각 정승'이라 불림.	
1574	선조 7	14	· 외삼촌인 柳相國을 따라 抱川에서 글을 읽음. · 延平 李貴, 監司 朴慶新의 형제인 慶先과 慶深, 尹暹과 同學.	
1577	선조10	17	· 영의정 李山海의 딸인 韓山 李氏와 혼인.	
1578	선조11	18	· 生員試와 進士試에 모두 합격. · 白沙 李恒福과 교분을 맺음.	
1580	선조13	20	· 문과에 급제.	· 承文院 權知副正 字
1581	선조14	21	· 장남 如圭가 태어남. · 藝文館에 피선됨.	
1582	선조15	22	· 李珣에 의해 綱目강독에 李恒福·吳億齡·李廷立·李嶸 등과 함께 선출됨.	
1583	선조16	23	· 李珣에 의해 이항복과 함께 홍문관 正字(정9품)에 선임됨.	· 承文院 著作, 弘文館 正字. · 弘文館 博士
1584	선조17	24	· 瑞臺應製에서 장원.	· 副修撰, 平安道御史, 司諫院 正言, 副校理
1585	선조18	25	· 둘째아들 如璧가 태어남.	

연도	왕력	연령	내 용	역임한 관직명
1586 1587	선조19 선조20	26 27	· 성균관직강을 제수 받은 후 학업을 위해 사임을 청하자 휴가를 주어 湖堂에서 독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처함.	· 吏曹佐郎 · 校理, 成均館直講.
1588	선조21	28	· 교리에 있으면서 휴가를 얻어父가 있던 安峽縣 (강원도 伊川郡)에 머뭇. · 이조정랑에 올라 선위사로 차출됨.	· 校理, 吏曹正郎, 宣慰使.
1589	선조22	30	· 셋째아들 如璜이 태어남. · 倭使를 따라 동래로 내려와 부산포에서 통신사를 송별함. · 宣慰의 공적을 높이 여겨 등급을 뛰어서 홍문관 직제학을 제수함.	· 弘文館直提學, 通政大夫, 承政院 同副承旨, 右承旨, 司諫院大司諫, 僉 知中樞府事, 弘文 館副提學, 成均館 大司成, 吏曹參議.
1590	선조23	31	· 말미를 얻어 안협현으로 父를 뵈러 가는데 왕이 豹皮로 된 담요를 특사함. · 避嫌하는 啓辭를 올려 기축사화 때에 연루되었던 많은 신하들을 구제함.	· 大司諫, 嘉善大 夫, 禮曹參判, 弘文 館大提學, 藝文館 大提學, 知成均館 事.
1592	선조24	32	· 일본의 장수 小西行長 등이 부산에 도달함. 임진왜란 시작. · 정국이 어지러움을 들어 광해군을 세자로 세우는데 앞장섬. · 왜장 平行長이 공문을 보내 한음과 강화를 논의할 것을 제안하여 왜진으로 갔으나 평양으로 되돌아옴. · 단신으로 배를 타고 玄蘇와 平調信을 대동강 한가운데서 만남. · 定州에서 청원사로 차출되어 요동으로 가서 원병을 청함.	· 2월 司憲府大司 憲, 同知中樞府事, 6월 大司憲, 請援 使.

연도	왕력	연령	내 용	역임한 관직명
1593	선조26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월 왕세자에게 임시로 대리하여 국사를 맡아보게 하는 諭書를 지어 올림.</li> <li>· 9월 부인 한산이씨가 안협현의 白巖山에서 순절함.</li> <li>· 휴가를 얻어 안협에 省親하고 10월에 조정으로 돌아와 대사헌을 사임함.</li> <li>· 경기·강원·황해 등 三道의 인근 고을을 잘 경영하여 서울을 수복하는데 도움이 되게 할 것을 계청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월 資憲大夫, 漢城府判尹, 接伴使(赴李如松軍中).</li> </ul>
1594	선조27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월 李如松을 따라 평양을 수복함.</li> <li>· (1월 7일 小西行長 평양성을 떠남.)</li> <li>· (2월 12일 權標, 幸州山城에서 일본군을 대파함.)</li> <li>· (2월 22일 이순신, 용천을 공격함.)</li> <li>· 4월 이여송을 따라 평양을 떠나 개성에 도착함.</li> <li>· 4월 19일 왜군이 서울을 버리고 남쪽으로 도망하여 20일에 명군과 함께 서울로 들어옴.</li> <li>· (4월 28일 한양을 수복하고 望闕禮를 행함.)</li> <li>· 9월 의주에서 이여송을 전별함.</li> <li>· 휴가를 얻어 通津縣(지금의 경기도 김포)으로 省親함.</li> <li>· (12월 18일 정철 죽음(153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刑曹判書, 10월 正憲大夫, 訓練都監副題調, 윤 11월 兵曹判書.</li> </ul>
1595	선조28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월 화약 제조법의 습득을 계진함.</li> <li>· 가을 대제학을 제수받았으나 사임함.</li> <li>· 9월 接待都監堂上으로 中朝의 유격장 胡大受를 만나 兵備司의 설치 여부를 의논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월 知經筵事, 2월 兵曹判書大提學(不赴), 平安道觀察使兼巡察使, 9월 主海西道科試, 10월 四道副察使(경기·황해·평안·함경)</li> </ul>

연도	왕력	연령	내 용	역임한 관직명
1596	선조29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월 남한산성 쌓는 일을 계청함.</li> <li>· 3월 中興洞山城을 살펴보고 수선할 재책을 아뢰.</li> <li>· 휴가를 얻어 楊根(지금의 양평)으로 아버지를 버러 감.</li> </ul>	10월 兵曹判書, 大提學, 訓練都監提調.
1597	선조30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월 復軍을 처음으로 설치하고 8도에서 병사를 모집함. (약 20만의 일본군이 다시 조선을 침략함.)</li> <li>· 2월 통제사 이순신이 체포 하옥되니, 伸救할 것 을 아뢰. 上番軍의 폐단에 대해 아뢰. 病狀을 올려 공조판서를 제수받고 訓練軍務만 전관함.</li> <li>· 4월 왜군이 다시 침입함.</li> <li>· 7월 明軍이 음.</li> <li>· 9월 經理御史 楊鏞가 여러 장수들을 보내 稷山에서 왜군을 대파함.</li> <li>· 12월 楊鏞의 부대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던 중 이조판서를 제수받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월 復軍招募官, 2월 工曹判書, 3월 左贊成 接伴使 (赴義州接伴楊鏞), 11월 禮曹判書, 12월 吏曹判書.</li> </ul>
1598	선조31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월 양호가 탄핵을 받아 함께 서울로 돌아옴.</li> <li>· 7월 양호가 중국으로 돌아가는데 개성부까지 따라가 전송함.</li> <li>· 9월 訓子孫帖을 지어 손수 써서 遺訓으로 삼도록 함.</li> <li>· 10월 대마도정벌을 계청함.</li> <li>· 11월 이순신 사망.</li> </ul>	· 4월 大匡輔國崇祿大夫右議政, 10월 左議政.
1599	선조32	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월 봉당의 피해를 아뢰. 국내 장정들을 뽑아 명군을 도와 防守할 것을 청함.</li> <li>· 윤4월 여러 곳을 순행하고 羅州에 도착하여 役所를 설치하고 머뭄.</li> </ul>	· 윤4월 判中樞府事
1600	선조33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월 李元翼과 날마다 비변사에 나가 군량의 마련을 도모함.</li> </ul>	· 봄 訓練都監提調

연도	왕력	연령	내 용	역임한 관직명
1601	선조34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월 대마도의 왜사 橘持正을 물리침.</li> <li>· 太師 戚繼光의 (紀效新書)를 기반으로 무예의 체계를 세워 번역함.</li> <li>· 순찰중에 永川에 도착하여 始祖의 묘소에 제사를 지냄.</li> <li>· 사명대사 維政을 영남에 머물게 하여 倭使가 오는 데에 대비하게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월 四道都體察使(충청·전라·경사·강원)</li> </ul>
1602	선조35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2월 領議政</li> </ul>
1603	선조36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白沙 李恒福이 임진왜란 당시 明軍의 파병을 성사시킨 공을 들어 녹훈을 계청함.</li> <li>· 列朝의 實錄을 局에 설치하고 판각하는 일에 摠裁의 임무를 맡음.</li> <li>· 戶曹의 擘에 따라 鑄錢을 사용할 것을 獻議함.</li> </ul>	
1604	선조37	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筭子를 올려 훈육을 사양하고 의병활동을 했던 金千鎰·高敬明·趙憲 등 세 忠勳을 기록해 줄 것을 청함.</li> <li>· 臨海君사건을 아뢰다가 엄한 하교를 받고 判中樞府事로 물러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判中樞府事</li> </ul>
1605	선조38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父와 함께 龍津에 있는 別墅에 머뭄.</li> </ul>	
1606	선조39	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월 永昌大君이 태어나 백관이 하례를 올렸는데 병을 핑계로 참여하지 않음. 이항복도 나가지 않음.</li> <li>· 4월 詔使 朱之蕃을 접대하였는데 龍津 별서의 편액을 써줌.</li> <li>· 일본이 화친을 요구하자 이를 극력 반대하는 현의를 올림.</li> </ul>	
1608	선조41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월 상의 병세가 악화되서 여러 대신들과 함께 遺教를 받음.</li> <li>· 三司에서 臨海君의 처벌을 청했으나 이항복과 함께 全恩을 청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월 領中樞府事.</li> <li>· 6월 陳奏使(襲封使).</li> </ul>

연도	왕력	연령	내 용	역임한 관직명
1609	광해군1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明에서 광해군 책봉을 인정하기 전에 差官을 보내 이를 조사하러 하자 일의 부당함을 차자로 올림.</li> <li>· 陳奏使로 차출되어 광해군의 책봉을 받기위해 明으로 감.(明에서 다섯달을 머물면서 일을 성사시키고 돌아옴.)</li> <li>· 12월 책봉에 관한 공적으로 父에게 通政大夫判決事를, 子에게는 6품의 벼슬을 내림.</li> <li>· 明朝의 官服을 바쳐 제도를 바로잡게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월 광해군 정릉행궁에서 즉위함.</li> <li>· 봄 휴가를 얻어 용진에 계신 父의 병을 보살핌.</li> <li>· 3월 新政에 대한 11개 항의 箴戒를 올림.</li> <li>· 4월 조정으로 돌아옴.</li> <li>· 6월 2일 광해군 그동안 명의 지연으로 이루지 못했던 조선 국왕책봉식을 거행함.</li> <li>· 6월 28일 임진왜란 이후 단절된 일본과의 국교를 회복하고 대마도의 歲遣船을 20척으로 정함.(己酉約條)</li> <li>· 9월 王大妃의 穆陵(선조의 능)참배를 정지할 것을 청함.</li> <li>· 11월 李山海의 葬事에 참여하고 祭文과 墓誌를 지음.</li> <li>· 昌德宮과 昌慶宮이 완성되어 新宮으로 옮길 것을 청함.</li> <li>· 12월 父의 병을 보살피기 위해 말미를 얻음.</li> </ul>		
1610	광해군2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父의 병환을 살피기 위해 관직의 해직을 요청하고 받아들여 지지 않아 말미를 구해 병을 살피다가 정사에 돌아오기를 여러번 반복함.</li> <li>· 윤3월 광해군의 生母인 恭嬪을 追崇하는 일의 그릇됨을 아킴.</li> </ul>	
1611	광해군3	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經理御史 楊鎬의 초상을 바침.</li> <li>· 둘째 아들 如璧이 殷山(평안남도)으로 부임하게 되자 글을 지어 경계함.</li> <li>· 五賢(鄭汝昌·金宏弼·趙光祖·李彥迪·李滉)을 文廟에 배향할 것을 주청하고 배향하는 절목을 헌의함.</li> </ul>	· 9월 左議政

연도	왕력	연령	내 용	역임한 관직명
1612	광해군4	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봄 용진에 머물면서 沙提曲을 지음.</li> <li>· 2월 조정으로 돌아옴.</li> <li>· 4월 鄭仁弘이 이언적과 이황을 비방한 죄를 논박함.</li> <li>· 3월 황해도에 옥사가 일어나 倭官이 됨.</li> <li>· 호패제도의 便否를 의논하여 아킴.</li> <li>· 9월 다시 영의정에 올랐는데 정인홍이 右議政이 됨.</li> <li>· 셋째 아들 如璜이 과거급제함.</li> <li>· 11월 翼社·亨難 두가지 勳錄에 기록되고 漢原府院君에 봉해짐.</li> </ul>	
1613	광해군5	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름 三司에서 永昌大君의 처형을 청하자 이항복과 함께 영창대군을 궐 밖에 안치할 것을 청함.</li> <li>· 仁穆大妃를 폐하자는 의논이 일어나자 이항복과 함께 극력 반대함.</li> <li>· 9월 성 밖에 안치되어 있던 영창대군을 다시 섬으로 옮겨 안치하자는 의논이 일자 차자를 올려 그 불가함을 아킴.</li> <li>· 龍津으로 물러감.</li> <li>· 9월 三司에서 이덕형에게 극형을 내리도록 청하기를 여러 날 계속하자 상은 그의 관직을 삭탈하고 성문 밖으로 門黜함.</li> <li>· 10월 9일 病死함.</li> <li>· 부음을 듣고 官爵을 회복시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월 領議政</li> <li>· 11월 策翼社 亨難功臣 封 漢院府院君(인조 반정 후 罷黜)</li> <li>· (削奪門黜)</li> </ul>
1614	광해군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월 3일에 楊根 中隱洞에 장사지냄.</li> </ul>	
1630	인조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文翼의 諡號를 내림.</li> </ul>	
1634	인조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漢陰文稿)를 펴냄.</li> </ul>	
1669	현종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월 尙州 近 書院에 배향함.</li> </ul>	
1692	숙종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抱川書院에 배향함.</li> </ul>	